

자녀들을 키우는 보람 있다

프라우다 마을의 이쾌임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

필자는 이쾌임 할머니를 지난 11월 초에 홀스크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한 행사에서 만났다. 홀스크 한인회의 이산가족 담당인 신연자 씨가 이분을 소개했다. 1세대 분으로 자녀들에게 교육도 잘 시키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쾌임 할머니는 1935년, 한국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나셨다. 9살 때 어머니와 오라버니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 사할린에 오셨다. 아버지는 1942년에 2년 계약으로 사할린에 들어와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일본인들은 아버지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한국에 있던 가족이 아버지를 찾아오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고르노사위드스크(나이호로)탄광에서 일하셨다고 한다. 1945년 사할린이 해방이 될 무렵에 가족은 며칠 동안을 쉼부니노 항구에서 훗카이도로 가는 배를 기다리느라 밤낮 언덕에서 지냈다고 하셨다. 그런데 돈을 들고 배에 오른 조선인들을 일본놈들이 훗카이도로 가는 동안 바닷물도 밀어 던지고 빠트렸다고 했다. 이 장면을 밧거나 그런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배 타지 말자. 물 귀신되려고 죽는 건 싫다."라고 하셨다고 한다. 고향길이 단하사 사할린에는 이렇게 수만 명의 한인들이 남게 되었다. 다들 잘 아는 역사이지만 그걸 극복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참혹한 실상이었는지. 사할린에 남은 할머니의 식구는 늘어나기만 했다. 오빠와 단 둘이던 가정엔 엄마가 남동생 셋을 더 낳는 바람에 5남매가 되었고 아버지는 계속 탄광에서 일하셨다고 한다.

조선학교 7년제를 다니셨던 이쾌임 할머니는 6학년 때 15세의 나이에 학교 졸업할 수 없게 되셨다고 했다. 학교 얘기를 할 때 할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에도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는 공부에 대한 의욕이 많았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는 13살 위의 노총각과 결혼하셨다. 남편 주인출씨도 역시 강제징용을 당한 분이셨다. 사할린 한인들 대부분이 그러하다. 남편은 가족에 5

대 독자였다고 한다.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셨다고 한다.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남편은 맨날 술만 마시고 간이 썩어 45세의 한창 나이에 돌아가셨다. 기껏해야 16년을 같이 보낸 것이다. 남은 재산이라고는 아이 다섯 뿐이었다.

우리 1세대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런 마음이 생긴다. 얼마나 부지런하고 가족과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무작정 뛰어들기 때문이다. 이쾌임 할머니도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셨다. 홀스크 구역 프라우다 통공장에서 통뚜껑을 제작하는 것을 해보기도 했는데 사실 남자들한테도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하루에 이 공장에서 나무통 1000개를 생산했다고 했다. 이 힘든 일에 4-5년을 바치고 솜초즈에서 농사짓기(오이, 토마토)도 했고 집에서는 텃밭 일도 30년간 해오셨다고 하셨다.

자녀들을 그저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좋은 교육도 시키고자 애쓰셨다고 한다. 덕분에 나름대로 성공하여 잘 살고 있는 자녀들을 할머니는 자랑스러워하신다.

2013년에 사할린주에는 가족 내 5명 이상의 자녀와 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 훌륭한 국민으로 양성한 어머니들에게 <모성의 영광> 메달을 수여했는데 이 메달의 첫 수여자 중 한 분이 바로 이쾌임 할머니이셨다. 여기에 홀스크 한인회의 추천이 있었다. 피땀 흘려 자녀들을 키운 보람을 보시게 된 것이다.

남편과 사이에 5남매를 둔 할머니에게는 지금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친정 식구 모두가 1964년에 북조선의 공민증을 받고 북조선공화국으로 떠난 것이다.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시던 부모님은 북한을 거쳐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길을 택하셨다고 한다. 이쾌임 할머니는 결혼하고 아이도 있는 마당에 부모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하셨다.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도 이 가슴아픈 얘기만큼은 이쾌임 할머니의 눈시울을 적셨다. 친정 가족이 떠난 후



홀로 남아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후 할머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4번 다녀오셨다고 한다. 1988년이 마지막이었다고 하셨다. 부모님께서 1990년, 한 해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오빠와 동생들도 모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하셨다. 현재 북조선에는 조카들과 종손들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과의 연락이 끊긴 지도 꽤 오래 되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할머니는 가족의 이산을 가장 싫어한다.

한 때 영주귀국할 생각도 있었으나 "자식들이 가지말라고 했고 또 내가 싫어했어요. 아이들과 떨어지기 싫었어요. 내 혼자 가서 뭘 하겠는가? 그래서 안 갔어요."라고 할머니는 설명하셨다. 이산의 뼈저린 아픔을 아시기에...

할머니는 한국에 6번 다녀가셨다 한다. 처음 가셨을 때는 남편의 친척과 시누이 댁에 가 있었고 다음은 적십자사 프로그램으로 일시모국방문을 했다고 하셨다. "지금 갈라 해도 다리가 말을 안 듣소. 잘 걷지 못하오." 라며 할머니는 한국에

못 가시는 이유를 설명하셨지만 그래도 적십자사를 통해 한번이라도 더 모국에 가보고 싶으신 듯하다.

현지 한인사회에서도 이쾌임 할머니는 존경을 받고 있다. 80회 생신을 넘기셨지만 정신도 맑고 기억력도 좋아 보이셨다. 재작년에 풍으로 쓰러지셨던 할머니는 가족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셨다. "남은 게 병뿐입니다. 풍으로 허도 잘 안 돌아가고 말도 줄줄이 안 나옵니다."라고 할머니는 필자에게 하소연 하셨다. 하지만 할머니는 줄 거리를 잘 잡아 얘기도 차분하게 잘 하셨다. 할머니께서 풍이 왔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셨으면 전혀 그런 줄도 못 알아챌 만큼.

요즘은 이쾌임 할머니는 한국 티비방송을 즐기는 낙으로 하루를 보낸다고 하셨다.

"KBS, MBC, SBS - 케이블 티비를 통해서 봅니다. 물론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병원선>을 재미있게 마쳐 봤습니다. 역사드라마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옛날에는 한국 방송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국 방송이 들어오니 아주 좋습니다."라고 이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이 할머니는 자녀들과 손자들의 사랑과 배려를 듬뿍 받고 있다고 하신다. 자녀들을 위한 희생의 삶에 보답이 아닐까. 자녀들 중에서는 딸과 가장 가깝게 지낸 다시며 하나뿐인 딸이고 막내이니 더 그런 것 같다고 하신다. 같은 마을에서 사는 딸 리다는 거의 매일 출퇴근하는 길에 엄마를 찾아온다고 하신다. 류블리노 촌에서 살다가 아이들이 얼마 전에 프라우다 마을에 아파트 2칸짜리를 사주었다고 이 할머니는 자랑하셨다. 둘째 아들 집도 할머니 댁과 가깝다며 큰 아들은 홀스크에서, 또 한 아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살고 있지만 할머니는 걱정이 많으시다. 그리고 유일하게 사할린을 떠나 우수리스크에서 거주하는 아들은 우수리스크 세관 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마다 어머니를 찾아온다고 하셨다.

손자들도 할머니와 연락을 자주 취하고 있고 손자 일곱에 증손자 넷이라고 자랑도 하셨다.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실 때면 절로 미소가 떠오르는 할머니를 보면서 '뉘니뉘니 해도 잘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이 진짜 행복'이란 생각이 든다. (배순신기자)

이 모 저 모

2018 국가 연합 수능시험 응시지원서 접수 2월 1일 마감

사할린주교육부는 재수생들과 전문교육기관 학생들에게 현재 2018년 국가 연합수능시험 응시에 대한 지원서를 접수 중이라고 고지했다.

조기 응시 기간(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또는 일반 응시 기간(5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에 국가 연합 수능시험의 응시자는 지원서를 2018년 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알렸다.

재수생들과 전문직업교육기관 학생들은 거주지역 교육국에 응시지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일반 중학교 졸업생들은 자신이 교육을 받았던 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정보에 대한 문의는 9시부터 17시까지 전화 8(4242) 46-59-60, 46-59-93.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на ЕГЭ-2018 заканчивается 1 февра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формирует выпускников прошлых лет, лиц, обучающихся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о том, чт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иём заявлений на участие в Един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экзамене в 2018 году.

Напоминаем, что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для участия в ЕГЭ в досрочный период (с 21 марта по 11 апреля) или в основной период (с 28 мая по 2 июля) необходимо до 1 февраля 2018 года.

Выпускники прошлых лет и обучающиес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должны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я в отдел образования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ыпускники средних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подают заявление в своем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у горячей линии с 9.00 до 17.00. Телефоны: 8(4242) 46-59-60, 46-59-93.

사할린 <고르니 워스두호>스키장 세계 눈의 날 기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고르니 워스두호>스포츠관 광단지는 세계 눈의 날을 맞아 1월 21일에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여 기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스포츠관광단지 나탈리아 포홀코와 영업부 부장은 방문객들을 위해 눈 도전게임, 스포츠 경기와 경연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키장의 전문가들은 초보 스키어와 스노우보드맨들을 위한 무료 강습교실도 개최할 예정이다.

눈의 날에 즈음하여 1월 9-10일 사이 남사할린에 불어닥친 풍설은 <고르니 워스두호>단지에서 특별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악천후는 많은 눈더미를 남겼으나 산에서는 스키를 타기에 적합한 기회로 확대해 놓았다. 현재 대부분의 스키코스가 정비되었고 정기 점검과 스키장 노선을 고르게 다지기 위한 인공강설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파홀코와 부장은 다시금 방문객이 쇄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тметит Всемирный день снега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отовится отпраздновать Всемирный день снега. Масштабная программа запланирована на 21 января.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продаж СТК Наталья Пахолкова,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проведут снежный квест,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и конкурсы. Специалисты дадут бесплатный мастер-класс начинающим горнолыжникам и сноубордистам.

Своеобразный подарок ко Дню снега «Горному воздуху» преподнес циклон, который терзал юг Сахалина 9-10 января. Непогода оставила большие сугробы, что позволило расшир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катания на гор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уже расчищено большинство трасс, для профилактики и выравнивания площадок работает система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оснежения.

Пахолкова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вновь отмечается наплыв посетителей.

체호브센터의 새해 연극에

1 만 4000 여명의 사할린주민 관람

체호브센터는 새해 활동의 총결산을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사할린의 주요 무대에 132개의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약 1만4000명(그중 아동 1만2899명)의 관객들이 극장을 방문했다.

관객들이 관람한 화려한 연극 <슈카의 명령으로>는 알렉산드르 아게예브 극장 총감독이 연출하여 흥행하면서 이 연극의 배우들은 무대에 37번이나 올랐다. 나탈리아 샤프코와 감독의 <마법의 밤, 또는 장난감들이 깨어나면> 연극은 몇 번에 걸쳐 지방순회공연을 마치고 유즈노사할린스크, 돌린스크, 아니와, 코르사코브와 베레즈냐키의 극장들에서 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추위 할아버지와 백설공주는 아이들에게 축하하기 위해 가정극장을 조성해 순회공연하며 가정을 방문했다. 올 새해엔 새해 마법사들이 138명의 사할린의 유소년들을 찾아갔다.

(8면에 계속)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 ·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남북은 17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며,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 전 금강산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측은 현지 시설점검 등을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한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위한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1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회담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과 관련, "남북 간에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이라며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해당 경기연맹 등의 최종적인 합의와 승인이 있어야 확정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산 합동문화행사는 당일 일정으로 열리며, 남측 참가 인원은 금강산 육로를 통해 방북할 예정이라고 천 차관은 전했다.

천 차관은 또 마식령스키장에서 공동훈련은 "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북측은 이날 회의에서 30여명의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며, 평창과 서울에서 시범 공연을 하기로 했다. 북측은 아울러 230여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하며 남측 응원단과의 공동응원을 진행한다.

남북은 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응원단 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조선총련 응원단은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때도 441명이 입국한 바 있다.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한다. 경의선 육로는 평양에서 개성,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파주로 이어지는 도로로, 개성공단 입·출경에도 사용됐다.

북측 선수단은 2월 1일에,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2월 7일에 남측으로 이동한다.

북측은 경기장을 비롯한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의 활동에 필요한 현지시설 점검 등을 위해 25~27일 선발대를 파견한다.

북측 대표단은 남측의 안내에 따르며,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북측은 아울러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을 150여

명 규모로 파견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의 참가 종목과 선수단 규모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남북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및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선발대 파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동보도문에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과 관련된 사항은 담기지 않았다. 천 차관은 "저희가 논의를 시도했지만 북측에서 추후에 논의하자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날 전체회의 1번, 수석대표 접촉 6번, 대표 접촉 2번, 종결회의 1번 등 총 10번에 걸쳐 만났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천혜성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이 대표단으로 나섰다.

북측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단 단장으로, 원길우 체육성 부상과 김강국 조선중앙통신사 기사가 대표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기부 王' 재미동포 사업가 홍명기 회장,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에 37만불 기부

재미동포 사업가 홍명기 듀라코트 회장(84)이 국제무대에 세운 최초의 재외동포연구소인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에 37만불을 기부한다.

기부금 전달식은 미국 LA 시간, 1월 12일(금) 오후 12시 UCR Chancellor's Conference Room에서 홍명기 회장,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Kim Wilcox UCR 총장, Milagros Pena 인문대학장, 장태한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재미동포 전쟁영웅이자 인도주의자였던 故김영옥 대령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연구소로, 우리 정부와 미국 대학과 재미동포사회가 합작해 세운 최초의 동포 연구소이다.

동연구소는 지난 2006년 말부터 UCR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장태한(소수인종학과) 교수와 당시 재미언론인이었던 한우성 이사장 등을 중심으로 설립이 추진됐고, 총 7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연구소 설립비용은 재외동포재단과 대학측이 각각 300만 달러를 내고 나머지 100만 달러는 미주동포사회에서 모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번 홍 회장의 기부로 기존 동포사회 모금액 53만 달러를 합쳐 현재까지 90만 달러가 기부되었으며, 조만간 10만 달러 기부자를 밝힌 또 다른 기부자에 의해 당초 2019년 목표였던 동포사회의 100만 달러 모금 계획은 금년 상반기 중 조기 달성된다.

홍명기 회장은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 이자 리딩CEO이며, 한상들이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 글로벌한상드림의 초대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주사회를 넘어 모국을 위한 나눔에도 앞장서 현재까지 1천만불 이상 기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부산에서도 제대로 된 러시아 연극 즐기게 하겠다"

2017 한국연극베스트상 극단 '이그라' 최성우 대표

"부산에서 정통 러시아 연극을 제대로 해내겠다는 욕심이였죠. 쉽지 않았는데, 극단 창단 10주년을 앞두고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고맙고 기쁩니다. 러시아 사실주의 연극의 매력을 많은 분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극단 '이그라'의 최성우(46) 대표가 말했다. 이그라는 지난해 말 작품 '갈매기'(안톤 체호프 작, 최성우 연출)로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연극대상'에서 '2017 한국 연극 베스트 작품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연극대상'은 눈에 띄는 활동을 보여준 국내 연극인과 작품을 해마다 선정해 젊은 연극인상, 자랑스러운 연극인상, 올해의 연극, 베스트 작품상 등을 수여한다. '베스트 작품상'은 서울을 제외하고 14개 지역에서 한 작품씩 뽑는데, 부산의 영예는 이그라에 돌아갔다. 지난해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열린아트홀(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공연됐으며, 원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서사를 제대로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극단 이그라는 2008년 1월 창단했다. 놀이, 연극을 뜻하는 'play'가 러시아 말로 '이그라'다. 경상도 방언으로 '이거다!'는 의미도 있다.

대표이자 연출가인 최 대표는 1996년부터 8년 동안 러시아에서 연기와 연출을 공부하며 극작가 안톤 체호프를 비롯해 러시아의 사실주의 연극과 메소드 연기 이론에 깊이 매료됐다.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이었다

최 대표는 "러시아 연극은 현실적이고, 인간적이고, 사실적이다. 과장된 표현을 절제하고 일상을 무대로 옮겨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그 속에서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읽어낸다"며 "러시아 정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세심한 표현이 그래서 중요하다. 국내에서 체호프 작품이 많이 공연되지만 놓치는 점이 발견되곤 했다. 제대로, 잘 만들어보고 싶었다. 자신 있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창단 이후 체호프의 '바나 아저씨' '갈매기' 등 러시아 작품과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검찰관' 등 고전 번역극을 해왔다. 유학 시절 만난 아내이자 배우 김정순 부산예대 교수는 최 대표와 이그라의 한 축을 맡는다. 두 사람은 공연을 앞두고 러시아에 가서



'2017 한국연극베스트작품상'을 받은 극단 이그라 최성우 대표는 "2021년까지 안톤 체호프 4대 장막극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진 기자

의상은 물론 찾잔, 반지와 같은 소품까지 공수해 온다. 작은 몸짓 하나도 시대 분위기를 살려 연출한다. "손수건을 주머니가 아닌 소매자락에 넣는다든지, 마주 앉은 상대방에게 화가 나면 각설탕을 베어 물었다가 뱉어버리는 식의 표현 같은 거죠. 사소한 대목이지만, 원작 의도에 가까워지는 방법이에요. 희곡 연구는 당연하고요. 배우들과 충분히 대화하며 작품을 만들어가요. 한 번 들으면 금세 흡수하는 배우들 덕에 완성도가 쑥 올라갔어요."

소극장 무대가 대부분인 민간 극단에서 고전극 제작은 쉽지 않다. 작은 무대에 따른 공간 연출의 한계, 일인다역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인력 문제, 희곡 연구와 각색의 어려움 등 도전은 만만찮다.

최 대표는 "힘들지만 부산에서도 제대로 된 러시아 연극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갈매기' 공연 때 사할린 교포 2세 관객분들이 단체 관람 후 '체호프 정신을 봤다'며 기립박수를 보내던 순간은 정말이지 감격스러웠다"며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아 '바나 아저씨' '갈매기'를 다시 올리고, 이어 2021년까지 '벚꽃동산' '세 자매'를 제작해 체호프의 4대 장막극을 완성하려 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부산 출생으로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셰프킨 고등연기대학교와 러시아종합예술대학원에서 연출로 석사를, 연극학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국제신문, 안세희 기자)

사할린한국교육원 직원 채용 공고

사할린한국교육원은 현지 채용 직원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 아래 -

- 1) 모집 직종: 사무원
 - 통번역
 - 각종 행정업무
- 2) 지원자격
 - 가. 2018년 1월 1일 기준 만50세 미만 (1968.1.1 이후 출생자)
 - 나. 러시아 국적자
 - 다. 한국어 통번역 가능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증자 우대
 - 라. 컴퓨터활용능력 보유자 우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
 - 마. 사할린한인동포 사회에 기여자 우대
- 3) 채용기간: 2018.2.1. ~ 4.30. (3개월 수습)
 - ※ 3개월 수습 기간 후 정식 계약(1년 단위)
- 4) 선발절차
 - 가. 서류전형
 - 제출서류:
 - 공통: 이력서(교육원 제공 양식), 여권사본
 - 우대서류: 한국어능력시험 인증서
 - 컴퓨터능력활용 자격증(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 서류제출 기간: 2018.1.9.(화)~1.24.(수) 16:00
 - 제출방법: 한국교육원 방문 접수
 - 나.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3배수 면접 ※ 1.26.(금) 면접 대상자 통보
 - 면접일시: 2018.1. 29.(월) 10:00
 - 최종발표: 2018.1. 30.(화) (예정)
- 5) 문의처: 사할린 한국교육원
 - 주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미라거리 83-A
 - 전화: 505696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семинар «Чо Мёнхви и Авангард, корейск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щество»

24 января в 16:00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состо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еминар «Чо Мёнхви и Авангард, корейск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щество» с участием докладчиков из Южной Кореи, Владивосток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Чо Мёнхви – известный корейский и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проживавший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кра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Он родился в 1894 г. в корейском городе Янджу и опубликовал свою первую работу «Смерть Ким Ёниля» уже в 1920 г. В 1928 г. был вынужден бежать из Кореи в Советский Союз. Работал в средней школе в Хабаровске и выпускал газету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Авангард» («Сонбон») и журнал «Родина рабочих» («Норёкджа чоук»). Его перу принадлежат книги «Внутри земли», «Деревенские люди», «Красота и легкость». Был принят в Союз писателей СССР. Расстрелян в 1938 г.

Однако семинар будет посвящен не только писателю Чо Мёнхви, но и вообще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и искусству, их влиянию на корейск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на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Росси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глашают на семинар всех, кому интересна литература советских 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Мы все теперь - «разделённые семьи»

Президенту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Уважаемая Ок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С 1992 года действует программа переселения потомков 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из России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За это врем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уехали более 4500 человек. Да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спространялась только на граждан России, рожденных до 15.08.1945 года и не действовала в отношении следующих поколений, что фактически привело к разделению семе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анее уехавшие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достигли прекл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и часто уже не могут обходиться без посторонней помощи.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перед каждой семьёй стоит нелёгкий выбор - либо отправить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в пансионат для стариков в Корею, либо забрать их обратно, в Россию.

Пансионат в Корею имеет свои преимущества, важнейшее из них -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ая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Но огромным минусом является невозможность общаться со своей семьёй и чувство вины нас, детей, перед родителями, оставленных умирать в одиночестве.

Возвращение в Россию тоже имеет свои трудности. Если пожилой член семьи нуждается в по-

стоянном уходе, то одному из членов семьи нужно оставить работу, либо найти сиделку, что тем не менее не гарантирует надлежаще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хода и не решает проблему одиночества пожилого человека, оставленного в квартире на целый день.

Поэтому наши родители принимают решение доживать последние дни в доме престарелых в Корею, чтобы не создавать проблем для своих детей.

Учитывая все вышесказанное, оценивая все ошибки, которые были допущены, я прошу Вас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сложившуюся ситуацию и вместе искать пути ее решения. Одним из вариантов может бы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для наших стариков на Сахалине. Это должен быть аналог пансионата в Корею, куда мы бы могли приходить в любое время, ухаживать за родителями, зная, что им будет оказана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ая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Этот пансионат с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и тех, кто не уехал в Корею и живет на Сахалине - их, по последним данным, около 600 человек

Будет правильно, если наши родители проведут последние часы жизни здесь, на своей второй родине, в России, рядом с детьми и внуками.

С уважением,
Цой Виктория

От редакции:

Данное письмо было прислано в адрес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в конце ок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Затем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с автором письма, на которой была подчеркнута актуальность поднятой темы.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для опрос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было решено на основе выше опубликованного письма подготовить более развернутое письмо-обращение с целью публикации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Что и было сделано. В конце прошлой недели материал Виктории Цой «Все мы – разделенные семьи»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в групп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ейсбуке, а затем «пошел гулять» по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чатам Ватсапа и других соцсетей, вызвав большой резонанс среди репатриантов и корейцев 2-го поколения.

Автор публикации Виктория Цой просит сахалинцев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бсуждении и проголосовать в Фейсбуке и Одноклассниках на страниц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дчеркивая, «нам важно знать Ваше мнение».

Уже сейчас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начали работу по сбору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по поводу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ансионата престарелых на Сахалине.

Комментарий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Вопрос о создании Дома престарелых для 1-го покол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нимается уже давно. Об этом говорили лидеры всех трех ведущих организаций: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и Общества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Еще три года назад мн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пансионата престарелых на Сахалине было передано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Но эта инициатива не до конца была поддержана сами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1-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читается, что отдавать родителей в дом престарелых стыдно, следуя обычаям, дети должны сами ухаживать за своими родителями. К тому же на тот момент вопрос создания пансионата не стоял так остро.

Вопрос о создании пансионата был поднят на правлении Общества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в ноябре 2014 г. На этом собран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ыло решено провести анкетирование среди 2-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выработать требования к правительства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Японии.

В мае 2015 г.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очередное совещание лидеров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и СНГ, на котором официально был затронут вопрос создания пансионата. Речь идет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о создании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с дневным пребыванием при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11 мая 2015 г. Обществу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ыла передан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смета по содержанию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при ККЦ. В декабре 2015 г. состоялось правление РООСК, где был подписан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ной работ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РООСК, Общества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и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по вышеуказанному вопросу.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а Сахалин возвращается все больше репатриантов прекл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80 и старше лет). И как никогда актуален вопрос созд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пансионата для корейцев 1-го поколения. В связи с этим РООСК поддерживает начинание Виктории Цой в создании инициативной группы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решения вопроса о создании на Сахалине пансионата престарелых (1 этап –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и просит откликнуться желающих участвовать в работе инициативной группы. Тел. 510-482.

한국방문 체험수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한-사할린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문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할린 주민 누구나

공모부문: 한국방문 체험수기 (글 종류 및 언어 무관)

작품주제: 모국방문 (직접사서), 초청검진 (국립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동포재단 초청사업 (한국어교사연수,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영비즈니스포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해 체험한 대한민국 방문 후기 및 소감

공모기간: 2018년 2월 9일까지 새고려신문사로 우편 및 메일 발송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 (최우수 1명-300달러, 우수-1명 200달러, 장려-2명 100달러) 수여 외 우수작은 새고려신문 게재 예정.

перелетные люди
горнолыжный сезон на Сахалине

Гостиница ГАГАРИН

супер скидка на проживание
15% для всех лыжников и сноубордистов!!!

с 01/01 по 31/03

скидка действительна только при бронировании по тел.: 8(4242)498-400 И ЧЕРЕЗ E-MAIL: RESEPTION@GAGARINHOTEL.RU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Юг и Север обсудили участ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в зимних Играх в Пхёнчхане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7:30 по сеульскому времени 17 января, в ходе межкорейских переговоров на рабочем уровне в пограничном пункте Пханмунчжом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евера предложили направить на зимнюю Олимпиаду в Пхёнчхан группу поддержки из 230 человек. Предложено также открыть д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прибывающих на зимние Игры, наземный путь через западный участок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Ранее в тот же ден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евера предложили направить свою делегацию не только на зим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но и на Пара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Они пройдут с 9 по 18 марта.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делегации во главе с замминистр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Чхон Хэ Соном и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за ми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родины Чон Чжон Су затронули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о способом прибыт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в РК, расходами на пребыва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совместным проходом двух команд на церемониях открытия Игр, созданием единой женской команды по хоккею. Прибыт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наземным путём не нарушит режима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анкций, которы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запрет на вход в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орты судов, побывавших в СК в течение предыдущих 12 месяцев.

Уровень продаж билетов на Олимпиаду в Пхёнчхане превышает 60%

Уровень продаж билетов на предстоящую в феврале зимнюю Олимпиаду в Пхёнчхане превышает 66,4%. В оргкомитете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0 января было продано 709 тыс. билетов. При этом целево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ет 1 млн 68 тыс. билетов. В случае с Паралимпийскими играми продано 135 тыс. из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220 тыс. билет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уровень продаж составил 61,2%.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реформирует силовые структуры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К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ередать полиции часть полномочий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ы разведки. Речь идёт о расследовании дел, связанных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шпионами и нарушениями закона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роме того, решено создать управление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коррупции сред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госслужащих и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Полномочия прокуратуры в этой сфере будут значительно снижены. Полиция будет разделена на две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е структуры,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следственно-розыск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и заниматься поддержание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ередачу значительной части полномочий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ы разведки и прокуратуры полиции. Оппозиционная партия Свободная Корея выступает против того, что спецслужбы прекращают проводить расследова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родная партия сохраняет сдержанность, одновременно одобряя меры, препятствующие чрезмерному раздуванию полномочий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

Суд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заморозить активы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ак Кын Хе

Суд Центральног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круга Сеула принял в пятницу решение заморозить активы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Пак Кын Хе на общую сумму 6 млрд вон или 5 млн 620 тыс. долларов. Они включают принадлежащий Пак Кын Хе дом в Сеуле стоимостью 2,5 млн долларов и чеки на сумму 3 млн долларов. Бывшему президенту запрещено распоряжаться активами до вынесения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решения по делу о коррупции, в котором замешана Национальная служба разведки. Доказано, что в период с мая 2013 по июль 2016 года Пак Кын Хе вместе с тремя помощниками получила порядка 3,5 млн долларов из особого фонда спецслужбы.

Фестиваль горной форели в Хвачхоне пользует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Фестиваль горной форели в Хвачхоне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пользует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В этот раз его уже посетили более 900 тыс. человек.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т с 6 по 28 января. По данны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езда Хвачхон-гун,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4 января фестиваль посетили 907 тыс.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55 тыс. иностранцев. Если тенденция продолжится, то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посетят более 1 млн человек, что станет новым рекордным показателем, который обновляется в течение 12 лет подряд, начиная с 2007 года.

(RKI)

Безопасность Олимпиады в Пхенчхане обеспечат дирижабли и дроны

Десятки тысяч полицейских, военных, сотрудников спецслужб, а также самая современная техника, включая дирижабли и дроны, будут задействованы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Олимпиады в 2018 г. Об этом заяв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комитета Олимпиады-2018 в Пхенчхане, которая стартует уже менее чем через месяц - 9 февраля.

Как заверили власти Кореи, они имеют богатый опыт проведения самых круп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ключая Кубок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летнюю Олимпиаду, многосторонние саммиты и прочее, а потому в ходе игр в Пхенчхане безопасность будет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Для ее обеспечения,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будет задействован военны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й дирижабль. Он будет постоянно "висеть" на высоте 150-200 м, передавая находящемуся внизу центру управления и обработки информации данные о ситуации на объектах Олимпиады и вокруг них. На самом 17-метровом дирижабле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камеры высокого разреш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организаторы отметили, что они подготовились достойно встретить и возможные атаки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Любой подозрительный дрон попытаются нейтрализо-

вать тремя способами: путем задействования аппаратуры постановки помех, либо в действие вступят снайперы или "дроны-истребители", которые также имеются у корейских служб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объектах ОИ-2018 и прилегающей территории уже установлены 810 камер высокого раз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отслеживают подозрительных лиц 24 часа в сутки. Все автомобили, въезжающие на подконтрольную территорию,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через специальные рентгеновые сканеры,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рассмотреть все содержимое машины.

Организаторы не назвали точную цифру все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 сфере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порядка на Олимпиаде в Пхенчхане, но сказали, что будут мобилизованы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тысяч военных", десять тысяч полицейских, а также около трех тысяч студентов факультетов,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хся на единоборствах, обеспечении правопорядка и курсантов полицейской академии. Отдельно привлечены 115 ветеранов контрразведки, полиции, а также бывшие офицеры и пожарные, которые имеют опыт работы во время Кубка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2002 года и саммита "Большой двадцатки" в 2010 году.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Южна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могут создать единую женскую сборную по хоккею

Южна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едут переговоры по созданию единой женской сборной по хоккею, с которой они намерены выступить на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в Пхенчхане.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просьбой южнокорейские чиновники уже обратились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лимпийский комитет и Международную федерацию хоккея, сообщив 2-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туризма и спор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Но Тхэ Хан. Решение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должно быть принято 20 января в Лозанне во время заседания МОК.

Напомним, что решение об участии КНДР в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в Пхенчхане было принято по итогам межкорейских переговоров 9 января. Ожидается, что из КНДР будет большая делегация из 400-500 человек. Атлетов будет около 10 человек, а остальные будут офици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НДР, группа болельщиков,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коллектив, команда по тхэквондо и журналистский пул.

"Во время переговоров 9 января были озвучены раз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включая создание единой олимпийской женской сборной по хоккею, совместный проход на церемониях открытия и закрытия и другие", - сказал замминистра Но Тхэ Хан в интервью информагентству "Енхап". Но Тхэ Хан, который лично участвовал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переговорах,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пока не приня-

то, а если единая женская сборная по хоккею и будет создана, то это будет сделано "так, чтобы не было ущерба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словам экспертов,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единая олимпийская корейская хоккейная команда будет формироваться на основ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борной с добавлением нескольких хоккеисток из КНДР. Согласн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 единую корейскую хоккейную сборную должны войти от шести до вось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Отметим, что женские сборные РК и КНДР недавно встречались между собой. Матч прошел в Южной Корее и закончился победой южанок, но общая атмосфера была очень дружественной.

По словам замминистра Но Тхэ Хан, Южная Корея уже обратилась в МОК и Международную федерацию хоккея,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одобрение на создание единой команды и включе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янок.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будет принято 20 января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МОК. Судя по осторожным прогнозам из Сеула, южнокорейцы считают, что МОК одобрит создание единой корейской команды.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первые за последние 27 лет может появиться единая корейская команда. До этого в 1991 г. была единая корейская сборная по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На основе этой истор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л потом снят фильм,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большую известность.

Новая информация позволила иначе взглянуть на потенциальный состав делегации спортсменов КНДР на ОИ-2018. Ранее было сказано, что из 500 челове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10 человек будут именно атлетами. Практически точно туда войдет пара по фигурному катанию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оторая ранее прошла отбор и получила прав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Олимпиаде-2018 на основе спортивного принципа. Для остальных МОК собирал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аво на особое приглашение. Если будет создана хоккейная команда единой Кореи, то из КНДР приедут два спортсмена по фигурному катанию и шесть-восемь хоккеисток. До этого были предположения, что в Пхенчхан придут из КНДР лыжники, шорт-трекисты и конькобежцы.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далеко не все в Южной Корее с радостью встретили заявления вице-министра о возможном создании единой женской хоккейной сборной.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такое внезапное "внедрение" людей, которые до этого не играли в команде, может существенно сказаться на итоговых результатах. Кроме того, неизбежно, что некоторы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хоккеисткам придется уступить свои места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м КНДР.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18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анун Дня российской печати на Сахалине чествовали лучш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ежегодн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журналистских работ «Золотое перо Сахалина-2017» состояла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Ее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руководител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издательских компаний.

Минувший 2017-ый – год 70-ле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 серьезны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островных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дио АСТВ вышло в эфир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Укрепила свои позиции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 она перешла на HD-вещание, которое отличается высокой четкостью и яркостью картинки. В 2017 году к интернету подключено 11 населённых пунктов. Островные сетевые ресурсы расширяют зону влияния – организуют каналы в мессенджерах и группы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Продолжают выходить в свет печатные издания, среди которых есть и ровесники области. Это газеты «Долинская правда», «Красное знамя», «Звезда», «Тымовский вестник», «Углегорские новости», «На рубеже».

Журналисты выявляют болевые точки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 подчеркнул значимость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 И м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реагируем на ваши публикации. В результате многие проблемы, волнующие земляков, быстро и эффективно решаются. Так было, есть и будет.

Глава региона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островные средства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будут и впредь успешно выполнять свою миссию – информировать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о важнейших событиях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жизн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страны в целом. Олег Кожемяко поздравил собравшихся с Днем российской печати, пожелал им успешной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благополучия и новы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достижений.

В год 70-летия области островные СМИ создали немало интересных и познавательных проектов о развитии родного края. Поэтому в ежегодном конкурсе «Золотое перо Сахалина» появились новые номинации.

Дипломом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ремией «Золотое перо Сахалина»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телевизионный проект, посвященный 70-ле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гражден режиссер монтажа телекомпании «АСТВ» Денис Сидоренко (проект «Это Сахалин, детка»).

Лучшим юбилейным телевизионным начинанием стала серия исторических сюжетов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и «ОТВ» Марии Рябовой.

За Интернет-проект «ПроОстрова» дипломом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емией «Золотое перо Сахалина» отмечена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редактора РИА «Сахалин-Курилы» Наталья Примака.

В сфере печатных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победителей оказалось двое. Это корреспондент газеты «Губернские ведомости» Вадим Горбунов (проект «Живая история») и внештатный корреспондент газеты «Сахалинская жизнь» Сергей Лукьянов (статья «Последнее путешествие Чехова»).

Лучшим радио-проектом стал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радионОВОСТИ». Награду получила шеф-редактор службы информации радио «АСТВ» Анастасия Жукова.

Также специальными премия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за особ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издательского дела, внедрение инновационных идей и технических решений, организацию успешных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отмечен ряд остров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и работников издательской отрасли. Среди них – Владимир Арнаут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филиала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ладимир Бубнов,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Рыбак Сахалина», Татьяна Егорова, корреспондент газеты «Губернские ведомости», Михаил Крупельницкий, внештатный сотрудник газеты «Сахалинский нефтяник» (Охинский район), Сергей Нерсисян, директор телекомпании «Акватория», Анна Козляковская,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редактора газеты «Губернские ведомости», Мария Денисенко, шеф-редактор службы новостей «Наш день» телекомпании «АСТВ» и Вадим Мыльев, технический директор телекомпании «ОТВ».

Почетной грамот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гражден телеоператор ГТРК «Сахалин» Александр Донцов.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губернатора отмечены: коллект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типографии, ведущий инженер по телевизионному оборудованию «ГТРК Сахалин» Виктор Крючков, корреспондент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Сахалин.Инфо» Кирилл Ясько, корреспондент газеты «Долинская правда» Галина Ищенко,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и «Европа плюс Сахалин» Михаил Лейдман.

Сахалин готовится принять олимпийскую сборную России по сноуборду

На острове пройдет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этап подготовки спортсменов к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Пхенчхане. Восемь членов сборной прибываю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1 февраля. Базой для их финальных тренировок и акклиматизации перед Играми-2018 станет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Горный воздух».

На Сахалине сегодня созданы, пожалуй, лучшие условия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Олимпиаде сноубордистов вы-

сокого уровня.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горных склонах обустроена самая больша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 Сибири зона катания, действуют несколько канатных дорог. Да и климат зимой во многом схож с олимпийским Пхенчханом, – отмечает 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горнолыжного спорта и сноуборда России Леонид Мельников. – Опыт подготовки олимпийцев у региона есть –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перед Играми 1972 года в японском Саппоро на склонах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уже проходили акклиматизацию члены сборной страны.

Для тренировок росси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планируют создать трассу, подобную олимпийской. Основой для нее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станет «Армейка», которая отличается значительной крутизной склонов и сложностью прохождения. Ее дополняют элементами для двух дисциплин сноуборда – ски-кросс и фристайл. Подготовкой спуска займутся техниче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сборной, которые прибывают в область 25 января.

Ряд новаций в этом сезоне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ожидает и горнолыжников-любителей. На курорте откроется входная группа. В работу запустят новые трассы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около 10 километров на горе Красной, где уже построена канатная дорога.

В последующие годы комплекс обретет гостиничные комплексы – в долине между горами Красной и Большевик, а также в районе базы «Динамо».

Нынешний сезон уже принес «Горному воздуху» несколько рекордов посещаемости. 5 января курорт принял 4996 человек. А в дни новогодних каникул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 более 33 тысяч гостей из 7 стран, которые прошли через турникеты 200 тысяч раз.

Достичь таких весомых показателей посещаемости помогла погода. На горе Большевик сформировался двухметровый слой снега, что позволило запустить все трассы. Важную роль сыграла тарифная политика авиакомпании «Аэрофлот». Например, перелет на остров из Хабаровска или Владивосток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ой зимой, подешевел почти вдвое. Для российских туристов сегодня действуют 16 различных горнолыжных туров. В дополнение к ним можно выбрать обзорные экскурсии по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 юга острова. В конце января планируется организовать круглосуточную работу колл-центра, который поможет гостям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определиться с программой поездки.

– Это очень здорово, что 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с каждым годом становится популярнее. И не только у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но и гостей. Важно 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Горный воздух» и дальше наращивал обороты, привлекал все новых посетителей. Для этого надо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а создани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строительстве гостиниц, точек общепита, организации удобной системы проката инвентаря и других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услуг. Уже в этом сезоне должна быть организована выездная торговля, а в выходные и праздники – действовать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Требуется отрегулировать размещение транспорта на автостоянках, чтобы не было его скопления, – обратился в ходе рабочего совещания к руководителям област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губернатор региона Олег Кожемяко. – Уверен, у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 большое будущее. Это стержневой проект для сферы туризма и услуг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райвер островной экономики,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чих мест. В перспективе он должен объединить все популярные и отдыхающих направления – от горных и беговых лыж до снегоходов, поездок на собачьих упряжках и рыбалки. Уже в этом году с вводом новых трасс на горе Красной общая длина горнолыжных спусков увеличится до 35 километров.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сахалинский курорт войдет в тройку крупнейших в России.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правка: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ткрыт в 1960 году. Здесь участники советской сборной готовились к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1972 года в Саппоро. В постперестроечные годы комплекс заброшили. Его возрождение началось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еде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уже в XXI веке.

Сегодня «Горный воздух» – центр одноим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Здесь создается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рассчитанный как на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так и на туристов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а также из-за рубежа. На горе Большевик обустроена самая больша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зона катания, продолж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К 2020 году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появится свыше 50 километров горнолыжных трасс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оснежением, шесть новых канатных дорог. Частные инвесторы возведут две гостиницы, горнолыжную деревню, два водноспортивных центра, универсальный спортивный центр «Восток», японский бальнеолог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Ожидается, что к 2025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посетителей комплекса составит 6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год.

Услугами передвижных стоматологий за год в сахалинских селах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более 2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ктивно работают два мобильных комплекс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Один задействован на юге острова, закреплен за Корсаковской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ей. Второй базировался на севере,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Оба постоянно при-

нимают пациентов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не имеющих стационарных зубных кабинетов.

– Для людей из сахалинских сел, это очень удобно. Не надо ехать в райцентр. Да, и, прежде, чем попадешь к врачу, надо ещё взять талон, – оценила преимущества комплекса жительница Соловьевки Ольга Нешпор после приёма.

Мобильная стоматология пробудет в селе до конца января.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получить бесплатную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ую помощь могут жители и близлежащ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Чтобы попасть на прием, достаточно иметь при себе стандартный набор документов: паспорт, полис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и СНИЛС.

– Увидела объявление, что к нам приезжает стоматология, врачи в местной амбулатории тоже напоминали. На прием можно попасть прямо в день обращения, – рассказала местная жительница Оксана Мохова.

Снаружи комплекс ничем не отличается от обычного автобуса, а внутри разделен на два сектора. В одном созданы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работы зубного врача и медсестры, установлена современная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аппаратура. Во втором отсеке пациенты могут,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ождаться начала приёма, что принципиально важно в условиях зимы. Оптимальную температуру внутри мобильного пункта помогают поддерживать конвекторные обогреватели. В среднем комплекс обслуживает 12 пациентов в день.

– Этот передвижной комплекс обслуживает не только жителей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 селах Анив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втобус тоже делает остановки. Принимаем и взрослых, и детей. График движения расписан н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вперед. В феврале передвижной кабинет отправится в Новотроицкое, – отметила заведующая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им поликлиниче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Корсаковской ЦРБ Юлия Ким. – Очевидно, что такой формат работы с пациентами очень востребован.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виваются и другие формы мобиль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первые рейсы отправятся три новых передвижных рентген-кабинета, каждый из них оснащен маммографом и флюорографом. В парке медицинской спецтехники есть и девять мобильных поликлиник. Они также обслуживают жителей отдале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Напомним, что повышение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исполнения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овая котельная в Поронайске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На объекте сейчас идут пуско-наладочные работы. Ввод в строй котельной намечен до конца марта. А на полную мощность ее запустят с началом следующего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Потребность в новом объекте энергетики возникла в Поронайске давно. Старая котельная № 2, которая должна была обеспечивать теплом четверть жителей города, а это три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и несколько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с задачей не справлялась. Два котла, установленные в 2007 году, требовали замены. Здание топливного склада, построенное в 1933 году, – в аварийном состоянии. Осложняли ситуацию и юридические неурядицы.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ельной было смонтировано в помещениях частной компании, которая ежегодно в судебном порядке взыскивала с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за аренду по миллиону рублей. В итоге областные и районные власти принял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решение – строить новую котельную мощностью 18,5 мегаватт.

Проект прошел необходимые экспертизы. Стройка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Обеспечение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чественными услугам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 2014-2020 годы», заняла около года.

– Сейчас идет глобальная подготовка к пуску объекта, – рассказал инженер Антон Ерошкин. –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ельной испытали на холостом ходу. Результаты положительные.

Работать новый объект коммунальной энергетики будет на буром угле, который гораздо дешевле черного, а также дизельного топлива.

– Проек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ой технологии «кипящий слой», – сказал Дмитрий Зайцев,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Котельная будет сжигать меньше топлива и давать гораздо больше тепла. В итоге снизятся расходы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повысится надежность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жителей Поронайска. Новая котельная имеет запас мощности. Она может обеспечить теплом и существующие объекты, и жилые дома, которые будут возведены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А это значит, что в Поронайске открываются новые перспективы для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помним,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считает, что налаживание работы по обновлению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 приоритетная задача для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По его словам,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в этой сфере должны быть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критериев успеш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ых команд.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기획> 사할린에 우리 동포가 있다 문 대통령 약속에도... 사할린 귀국동포들의 겨울은 매섭다

(전호의 계속)

- 회관에서는 날마다 프로그램을 짜놓고 있습니다. 나들이, 노래교실 등 다양한 요일별 일정이 있는데요. 각각 다른 중증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정 소화에 큰 무리는 없나요? 또 기존에 정해둔 일정과는 다른 별도의 일정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중증 환자분들, 외상 환자분들은 참여가 어렵잖아요. 외상 질환자들을 제외한 주로 환자들과 치매 어르신들이 대상이예요. 저희가 모시고 원외 프로그램이라든가. 적십자나 마사회 등에 일반 공모, 공동모금 제안을 해서 지원을 받는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심한 질환자들은 어렵지만 남은 분들을 위해서 체조라든가 노래라도 하고 있는 거죠. 무료하시니까.

그런데 나들이는 힘들어요. 많이 가 봐야 20명도 안 되니까요. 치매 어르신들도 모시고 가야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가야 하기 때문에 나들이는 어렵고요. 잠깐 모시고 가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르신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나들이 프로그램 같은 것은 많이 지양하고 있고.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외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렵죠.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고정적인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원 분들이 꾸준히 지원해 주세요. 운동, 체조라든가 노래라든가. 저희도 노래 잘하는 직원이 있어서 같이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주말에 많아요. 학생들 학부모. 주말에는 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생필품 사드릴 돈도 부족... 정부 지원 제대로 이뤄져야"

- 회관운영은 대한적십자사와 정부, 인천시 등과 조율을 거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꾸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상부기관과는 주로 운영에 필요한 재정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관리 등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정규프로그램도 예산 지원이 되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적십자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데요. 적십자도 사할린동포를 위한 예산이 거의 바닥나서 없기 때문에. 그래도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쓸 테니 1000만 원 지원해달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책정할 때는 지금까지 국고에서 지원받았는데요. 주로 인건비잖아요. 요양보호사 고용 등 인건비. 예산안을 짜서 정부에 올렸습니다. 내년 2018년도부터는 연수구청을 통해서 올라가는데요. 사실 결정권은 국고니까 보건복지부에 있어요. 복지부 요양정책과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올린 대로 주는 게 아니고, 딱 잘라서 보내죠.

그 한정된 국고하고요. 시군구는 (어르신들이)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생계비는 시군구에서 2억 5천에서 6천~7천. 3억이 안되는데 밥값이죠. 3끼 밥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죠. 나머지 인건비 등은 국고지원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예산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의하나마나 예산을 잘라버리니 금년에 12억 원이 들어갔는데 내년엔 10억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거의 지역주민이나 그런 분들이 후원해주는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잘 논의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니까 답답하죠. 매년 예산 확보할 때마다 이번에는 얼마를 주냐 해가지고. 직원들 정원이 30명인데 정원대로 운영한 적이 지금까지 없어요. 현재 27명이거든요. 충분히 30명 분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안 주니까 직원을 채용할 수 없죠.

그렇다고 있는 직원 내보낼 수도 없고요. 그러다보니 직원들 업무 부담이 커졌죠. 잘 쉬지도 못하고요. 운영자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외상 환자 분들께 죽을 먹어야 하는데. 3명에서 어떻게 먹여요? 아침에는? 낮에는 쉰창죠. 사회복지무원도 있고요. 직원들이 급하면 올라가서 도와주지만. 낮부터 저녁까지는 쉰창인데 아침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밤 근무 직원들이 치매환자 모시라 참

힘들어하죠. 인원이 일반 장기요양시설처럼 거기에 맞는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재정지원을 그렇게 안 해주니 힘들어요.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올려도 예산 딱 자르면 못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전기요금, (추우면) 불도 때고 해야 하나까 그게 중요하지 프로그램 운영비는 뒷전이죠. 회관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원봉사 관리 같은 것은 전적으로 회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시설은 전국에서도 여기 한 곳뿐입니다. 4000명이 넘는 동포 어르신들이 한국으로 영주귀국 하셨다는 점을 떠올리면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24개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부부, 2명이면 임대아파트 들어가시려고 해요. 임대아파트 들어가서 두 분이 사시다가. 이제는 고령화되어서 불치병에 불날 뻔도 하고. 80세가 넘는 부부 분들이 밥해서 못 드시잖아요.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회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대상이 되시는 거죠. 어르신들이 아파트 사시는 걸 좋아하시긴 하죠. 건강하시니까. 밥을 해 잡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연세가 많으면 깜빡깜빡하시잖아요. 가스도 안 잠그고 물도 틀어놓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오시는 거지요. 요양시설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해요."

-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대통령의 사할린 첫 방문'이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일었지만 결국 무산됐는데요. 대통령의 사할린 직접 방문이 가지는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역방문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보고 싶은 자녀들 보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름 7월 말에서 8월 말 되면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사업입니다. 적십자에서 저도 어르신들 모시고 모스크바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8.15 경축사로 들었습니다. 경축사 보면 (문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날 사할린 대표 분들하고 대사관 가서 참석해서 말씀을 나눴죠. 앞으로는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실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좀 나아지겠쎬,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가질지. 제 입장에서는 예산을 딱 잘라버린 걸 보고 분개를 했어요.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관심을 갖겠다고 했는데. 하물며 영주귀국 1세 분들, 몸도 아픈 분들인데. 무조건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전 직원들이 분개를 했죠. '이건 역행하는 거 아니냐' 경축사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결과는 더 안 좋게 나왔냐 그거죠. 그래서 많이 속상합니다."

-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했으면요. 영주 귀국한 1세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보듬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관에 들어오신 동포 어르신들은) 일반 국내인들이 아니라 '특수계층'으로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1세 분들만 장애인 자녀들하고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이제는 평균 연령이 85세 가까이 됐어요. 84.3세 정도 됩니다. 노후에 사시는 동안 1세 분들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현장에 나와 보셔서 현실에 맞게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현 정부한테 바라는 거죠. 운영하는 데 힘든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지기로 했으니까요. 정말 어르신들 잘 모시고 있는 직원들조차도 실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현실적 부분에 맞춰서 양로시설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말대로 양로시설로 운영하면 직원들 다 잘라야 하는 거고요. 직원들 없으면 어르신 분들 못 모시잖아요. 점점 재정운영이 어려워져서 '내년에 어떻게 해야 하나' 살림걱정 하고 있습니다."

(끝)

(오마이뉴스, 박명훈 시민기자)

[우리말로 깨닫다]

반갑다는 말은?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반갑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반갑다는 말은 어떤 감정을 나타낼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만나서 반갑다는 말이다. 처음 만났을 때도 반갑다는 인사를 하고, 오랜만에 만났을 때도 반갑다는 인사를 한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말이 반갑다가 아닐까 한다. 우리말의 반갑다는 말은 기쁘다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만나서 기쁘다는 정도의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반갑다>의 의미를 명확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은 듯하다. 사전에서는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나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로 해석을 하고 있다. 반갑다는 말은 그립고, 즐겁고, 기쁜 감정이 담겨 있는 낱말이다.

반갑다는 말은 <반 + 갑 + 다>로 이루어져 있다. <갓 + 갑 + 다>(가깝다)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반기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반 + 기 + 다>로 볼 수 있다. <즐기다>의 예를 보면 반기다의 구조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반기다', '반갑다'의 형성 방법이 '즐기다', '즐겁다'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그런데 <반다>라는 말이 없어서 어원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갓다>나 <즐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어원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어휘 구조로 봐서는 '반', '갓', '즐'의 의미가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반'은 빛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단어가 <반짝>이다. 이는 빛이 나는 모습을 표현한 의태어이다. 모음을 바꾸면 <번쩍>이 된다. 번쩍과 연결되는 단어가 <번개>다. 번개도 하늘에서 빛이 내려치는 모습을 표현하는 어휘로 번은 빛과 관계가 있다. 번개는 하늘에서 '안개, 무지개, 는개' 등과 짝을 이루는데, 그 중에서 빛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별레 중에서 빛과 관련이 있는 것은 반딧불이이다. 이는 반디에서 발전된 말이다. 반디의 반도 빛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반디라는 말에서 반이 빛이라는 점이 희미해지면서 다시 뒤에 불이가 붙은 것이라 생각된다. 반디는 빛 별레인 셈이다.

반이 이렇게 빛의 의미임이 명확하므로 반갑다의 의미도 추론이 가능하다. 환해진다는 의미다. 얼굴이 밝아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밝아지지 않는가? 괜히 기쁜 웃음이 난다면 반가운 거다. 꼭 다문 입술을 하고 반갑다는 말을 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반갑다의 핵심은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다. 웃는 모습으로 사람을 맞이한다는 의미이다.

반갑다는 말을 하는 내 모습을 되돌아본다. 나는 밝았을까? 나는 사람을 만나서 기뻐했을까? 정말 반가웠을까?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웃음이 난다. 미소가 얼굴 한 가득이다. 하지만 싫은 사람을 만나면 얼굴도 굳고, 마음도 굳는다. 종종은 억지 웃음을 짓게 된다. 이런 웃음은 오래가지 못한다. 뒤돌아서면 사라져 버린다. 정말 0.1초도 안 걸린다.

즐거운 미소는 입가에 남아있다. 이걸 입가에 '걸려있다'고도 한다. 그야말로 싱글벙글 거린다. 사람들마다 묻는다. 좋은 일이 있냐고. 내가 말 안 해도 내 밝은 표정이 주변을 밝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반갑다가 보여주는 세상이다. 반가운 사람, 반가운 일이 많아지기 바란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청소년들을 위해서 극장에서는 <스노우 콘택(눈의 접촉)>이란 상호활동 파티가 11번 개최되었고 체호브센터는 어른들도 잊지 않고 새해방학 때에 연극 <보잉보잉>과 <숙녀 재봉사>를 상연하여 성황을 이뤘다.

12월 29일은 전통적으로 자선의 날로 체호브센터는 여러 자선행사를 가졌다. 체호브센터의 배우들은 <프레오돌레니예(극복)>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재활 센터를 찾아 가장 어린 학생들을 위한 연극을 상연하고, 본 센터의 소년·소녀들은 동화극을 보러 극장에 갔다. 이날 추위 할아버지와 백설공주는 다가오는 새해에 방학인데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에게 축하하려고 아동병원을 방문했다.

Новогодни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в Чехов-центре посетили 14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В Чехов-центре подвели итоги новогодней кампании.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с 22 декабря 2017 года по 8 января 2018 года на главной островной сцене прошло 132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посетили порядка 14 тысяч зрителей, из них – 12 тыс. 899 детей.

Они стали зрителями красочного спектакля «По щучьему велению» в постановке главного режиссера театра Александра Агеева. Артисты сыграли его 37 раз. Столько же раз отыграли выезд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Волшебная ночь, или Когда оживают игрушки» (режиссер Наталья Шаркова). Его оценили театрал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линска, Анивы, Корсакова и Березняков.

Для поздравления ребят на дому театр организовал выезды Деда Мороза и Снегурочки. В этом году новогодние волшебники посетили 138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Для подростков в театре прошли 11 новогодних интерактивных вечеринок Snow Contact. Не забыл Чехов-центр и про взрослых: в дни новогодних каникул было показано два аншлаговых спектакля - «Боинг-Боинг» и «Дамский портной».

29 декабря стал днем добрых дел для театра - традиционно Чехов-центр провел несколько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представлений. Так, артисты Чехов-центра отправились в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Преодоление», чтобы показать самым маленьким воспитанникам центра выезд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а ребята постарше приехали в театр на стационарную сказку. Также в этот день Дед Мороз и Снегурочка побывали в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ольнице, где поздравили с насту-

пающими праздниками детей, оказавшихся в новогодние каникулы в медицинском учреждении.

<미시즈 사할린>콩쿠르에 젊은 여성들의 참가를 권하다

<2018 미시즈 사할린> 콩쿠르의 두 번째 예심단계가 시작되었다. 첫 선발은 12월 초에 개최되었는데 이에 14명의 젊은 여성들이 참가했다. 다음 단계의 선발은 1월 20일에 있을 예정이다.

콩쿠르에 참가하는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부문의 범위에서 출전이 가능하다.

<미시즈> - 연령: 24-40세, 기혼, 슬하에 자녀.
<미스> - 연령: 18-25세, 미혼(한 번도 결혼 안 했음), 무자녀 전 참가자들에게는 협력업체와 후원으로부터 상과 상품이 주어지며 특별사진촬영도 있다. 선발된 우승자들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와 세계 <미스>, <미시즈> 콩쿠르에 사할린 대표로 참가하게 되고 패션잡지의 표지 모델에 오르며 보석상들로부터 상품권도 받게 된다.

대회조직과 연락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전화: +7 984 138-44-68

WhatsApp: +7 984 138-44-68

e-mail: elitmodel.sakh@mail.ru

Молодым женщинам предлагаю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Миссис Сахалин"

Стартовал второй этап отбора участниц на конкурс "Миссис Сахалин 2018". Очередной кастинг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20 января. Первый кастинг прошел в начале декабря, тогда в нем участвовали 14 молодых женщин.

В конкурсе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девушки и женщины в следующих категориях:

• "Миссис" — возраст 24-40 лет, замужем, возможно, и нет, наличие детей приветствуется.

"Мисс" — возраст 18-25 лет, не замужем (никогда не была), детей нет.

Всех участниц ждут призы и подарки от партнеров и спонсоро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фотосъемка. Победительницы представят Сахалин на конкурсе в Москве в номинациях "Мисс" и "Миссис" Россия и Вселенная, попадут на обложку fashion-журнала, а также получат сертификаты от ювелирных домов.

Связаться с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ожно следующими способами:

телефон: +7 984 138-44-68

WhatsApp: +7 984 138-44-68

e-mail: elitmodel.sakh@mail.ru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제 57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공고

1. 목적

가. 재외동포,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나. 한국어 능력을 측정,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2. 대 상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3. 일 시 : 2018. 4. 15(일) 09:30~16:00

가. TOPIK I : 오전 / TOPIK II : 오후

나. 입실시간 : 매 교시 30분 전

구분	교시	영역	입실 시간	시작	종료	시험 시간 (분)
TOPIK I	1교시	듣기 읽기	09:10	09:40	11:20	100
TOPIK II	1교시	듣기 쓰기	12:20	12:50	14:40	110
	2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

4. 장소 및 시행처 : 사할린한국교육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일시 : 2018. 1.9 ~ 2018. 1.31

나. 장소 :

교 부 장 소	주 소	전 화
사할린 한국교육원	유즈노사할린스크 미라 83-A	505696

6. 응시 수수료 : 300루블, 사진 2매(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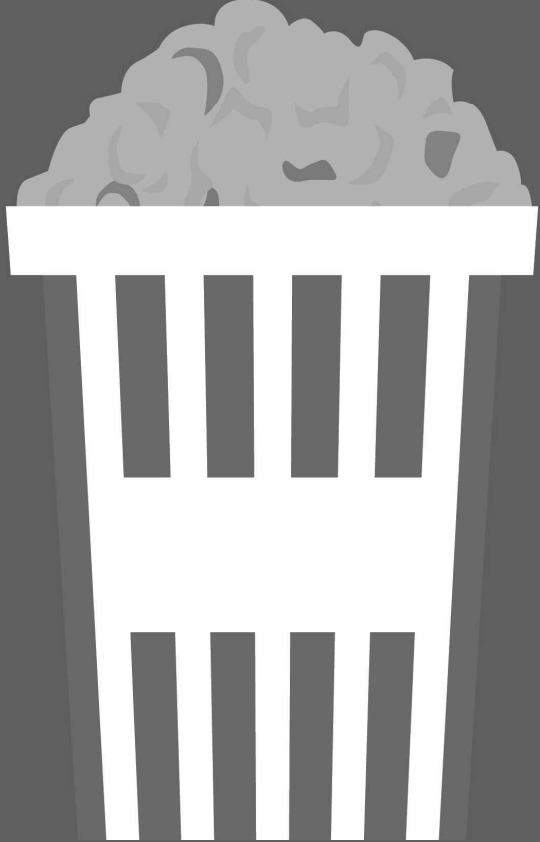
7. 시험결과 발표 : 2018. 5.24 이후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i>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i></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